

최명익 수필집 『글에 대한 생각』 연구*

김해연**

Ⅱ 차례 Ⅱ

- I. 머리말
- II. 『글에 대한 생각』 구성과 내용
- III. 당의 문학으로서의 글쓰기
- IV. 글에 대한 생각과 “인민 레찬”
- V.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최명익 수필집 『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다. 『글에 대한 생각』에는 모두 열아홉 편의 수필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글에 대한 최명익의 생각뿐 아니라 각 시기의 북한 문학계의 흐름과 정치적 변화가 반영되어 있고, 이에 대한 최명익의 문학적 대응이 들어 있다. 그럼에도 최명익이 남긴 수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금 조치와 더불어 이루어진 북한문학에 대한 관심과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지만 이제껏 최명익 연구가 소설에만 국한되어 왔다는 데에 이 글의 문제의식이 놓인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글에 대한 생각』에 실린 수필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을 2장에서 하였다. 『글에 대한 생각』에 수록된 열아홉 편의 글이 자기고백적인 수필과는 거리가 멀지만 작품 분량이 소설에 못지않다는 점에서 지금껏 소설에만 치중돼 온 최명익 연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전반부에 수록된 여덟 편의 수필들은 전후 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1953-1960)와 사회주의 전면 건설기, 천리마운동 시기(1961-1966) 당시의 북한 문학계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2013S1A5B5A07)임.

**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의 흐름과 정치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 점은 3장에서 살펴보았다. 이 작업을 통해서 각 시기 북한의 당 정책과 이에 대한 최명익의 문학적 대응을 살필 수 있었다.

본문 4장은 『글에 대한 생각』 후반부를 중심으로 최명익의 언어의식과 작가정신을 살펴보았다. 『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최명익의 언어의식과 작가정신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필집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 정확성, 부정확성에 따라서 육체적으로까지 다른 감각을 일으킬 것 같았”다는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말과 글의 바른 사용을 위한 그의 작가적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해방 전 예리한 시선으로 식민지적 근대의 한계를 감지하고 폭력성을 비판했던 최명익이지만 해방을 기점으로 북한문단의 중심으로 나아갔고, 문학세계 역시 변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명익은 긍정적 민중상을 발견했고, 글에 대한 열정을 인민예찬의 역사소설 쓰기에 쏟는다. 최명익은 역사소설 속에서 줄곧 “인민레찬”을 이야기했고 그 근거를 우리 민족의 “의리”에서 찾았다. 최명익은 주체의 자각이 들어있는 “의리”야말로 인민중심의 역사를 추동하는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급변하는 북한문학계의 변화 속에서 최명익의 인민예찬 문학론은 설자리를 잃었고 이후 그의 자취는 사라지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급변하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최명익이 꾸준히 작가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글에 대한 생각』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다 찾지 못한 최명익의 작품들과 밝히지 못한 그의 행적에 관한 문제는 본고의 다음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 최명익 수필, 글에 대한 생각, 북한문학, 당의 문학, 역사소설, 민중, 인민예찬, 의리

I. 머리말

『글에 대한 생각』¹⁾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에서 1964년에 간행된

1) 최명익, 『글에 대한 생각』,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최명익의 수필집이다. 『글에 대한 생각』에는 1951년부터 1964년 사이에 써어진 열아홉 편의 수필이 실려 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내밀한 자기 성찰을 담고 있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수필과는 거리가 멀지만, 각 시기의 북한 문학계의 흐름과 정치적 변화가 반영되어 있고 이에 대한 최명익의 문학적 대응이 들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²⁾ 해금 조치와 더불어 이루어진 최명익에 대한 관심과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지만 이제껏 최명익 연구가 소설에만 국한되어 왔다는 데에 이 글의 문제의식이 놓인다.

최명익 연구는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 최명익이 나고 죽은 때조차 명확치 않을뿐더러 아직 찾지 못한 작품도 여럿 있다.³⁾ 최명익 자신뿐 아니라 연구자들 각자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까닭에 당대인의 증언이나 글도 엇갈린 주장이 많다. 전쟁 직후 최명익에 가해졌던 비판, 1950년대 초의 숙청과 1984년 김정일에 의한 복권이 말해주듯이 북한에서의 평가도 각 시기의 당정책에 따라 달라진다.⁴⁾ 최명익은 60년대 후반 북한

2)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이명재 편, 『북한문학사전』(국학자료원, 1995) pp.131-134에 걸쳐 『글에 대한 생각』의 내용과 의미가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다.

3) 그의 출생 년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그가 남긴 글을 바탕으로 추정하여 1903년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문학』(2003. 7.)에 실린 윤광혁의 글에 의하면 그가 1902년 7월 14일 평남 강서군 증산면 고산리의 부유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윤광혁, 「최명익의 생애와 창작을 더듬어」, 앞의 책, pp.71-73.) 그의 몰년 역시 정확하지 않은데,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정도로 추측되고 있다. 신형기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로(신형기, 「최명익과 쇠신의 꿈」, 『현대문학의 연구』24, 2004. 9, pp.339-340.), 임옥규는 1972년으로(임옥규, 「최명익 역사소설과 북한의 국가건설 구상: 『서산대사』, 『임오년의 서울』, 『섬월이』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2호, 2008, pp.321-324.), 김은정은 최명익이 『이조망국사』를 창작하다 미완으로 남긴 채 1978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김은정, 「천리마 기수 형상론」과 최명익의 「임오년의 서울」, 『세계문학비교연구』33, 2010 겨울호, pp.81-82.) 적고 있다.

4) 전쟁 직후, 최명익을 ‘자연주의 작가’, ‘부르주아 잔재의 작가’로 비판한 대표적인 글

문단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그의 사후, 1984년 2월에 김정일은 유고 작품인 『리조망국사』를 완성하도록 조치했고 1993년에 『서산대사』(1956)와 『임오년의 서울』(1961)을 출판토록 허락했다. 2006년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의해 저작권을 남한으로 넘겨받았고, 북한 소설로는 처음으로 최명익의 『서산대사』가 서울에서 출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최명익의 단편이 실릴 정도에 이르렀다.⁵⁾

그럼에도 최명익 연구는 아직도 최명익이 해방 전에 발표한 소설에 치중되어 있다. 당대의 세대론 논쟁 이후 최명익 소설은 주로 지식인의 자의식 과잉, 심리소설,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란 측면에서 평가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명익에 관한 연구가 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해지고 다양해진다. 북한에서 발표한 단편소설과 역사소설에 관한 논의와⁶⁾ 서술 기법을 중심으로 한 글이⁷⁾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연구들 역시

로는 단편 <제일호>(1947)를 문제 삼은 한효의 글과 <마천령>(1947) 등을 문제 삼은 김명수의 글이 있다. 최명익의 역사소설 『서산대사』를 두고도 조중곤과 안함광은 긍정적 평가를, 윤세평과 고정옥 등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한효,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 이선영·김병민·김재용 엮음, 『현대문학비평자료집』2, 태학사, 1993, pp.488-489.; 김명수, 『문학의지향』,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p.53.; 조중곤, 「생활의 진실을 더 깊이 반영하기 위하여」, 『조선문학』, 1958년 1호, p.101.; 안함광, 「장편 소설의 구성상 문제」, 『조선문학』, 1963년 8호, pp.99-100.; 윤세평, 「우리 나라에서 장편 소설의 구성상 특성과 제기되는 문제」, 『조선문학』, 1962년 1호, p.111.; 고정옥, 「작가의 개성과 언어의 문체를 두고」, 『조선문학』, 1966년 6호, p.69.

5) 중학교 공통 국어 교과서 2학년 1학기에 최명익의 <장삼이사>(1941)가 수록된 것을 비롯해 선택 교과서제로 바뀐 후로도 최명익의 단편들이 각종 교과서에 수록되었고, <비오는 길>(1936) 등의 단편이 필독단편소설로 선정되거나, 기출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6) 채호석, 「리얼리즘에의 도정: 최명익론」,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김윤식, 「최명익론-평양중심화사상과 모더니즘」, 『작가세계』, 1990년 여름호.

최명익의 소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의 수필은 소설 연구를 위한 보조 자료로서 인용될 뿐이다.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최명익 수필집 『글에 대한 생각』의 규명으로 말미암아 최명익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의 문학세계의 외연이 더욱 넓어지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첫째, 본고는 우선 열아홉 편의 수필을 정리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을 2장에서 할 예정이다. 『글에 대한 생각』에 수록된 열아홉 편의 글이 자기고백적인 수필과는 거리가 멀지만 작품 분량이 소설 못지않다는 점에서 이 작업은 지금껏 소설에만 치중돼 온 최명익 연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⁸⁾ 둘째, 3장에서는 전반부에 수록된 수필

강현구, 『歷史小說『서산대사』研究』, 『한국어문교육』 제8집, 고려대 국어교육과, 1996.
 김재용, 『해방직후 최명익 소설과 「제1호」의 문제성』, 『민족문학사연구』17, 2000.
 김해연, 『해방 직후 최명익 소설 연구-〈맥령〉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17, 2002.
 홍혜미, 『역사소설의 의미 규명-최명익의 <서산대사>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 2003.

신형기, 『최명익과 채신의 꿈』, 『현대문학연구』24, 2004.

임옥규, 『최명익 역사소설과 북한의 국가건설 구상: 『서산대사』, 『임오년의 서울』, 『섬월이』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2호, 2008.

김은정, 『천리마 기수 형상론』과 최명익의 『임오년의 서울』, 『세계문학비교연구』 33, 2010 겨울호.

장수익, 『민중의 자발성과 지도의 문제-최명익의 중기 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60, 2012.

7) 윤애경, 『최명익 심리소설의 서술 방식과 현실 인식 양상』, 『현대문학이론 연구』24,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박종홍, 『최명익 창작집 의미』, 『장삼이사』의 초점화 양상 고찰』, 『국어교육연구』46, 국어교육학회, 2010.

박희현, 『최명익 소설의 글쓰기 방식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10.

김해연, 『최명익 소설의 서술 기법 연구-〈장삼이사〉와 〈맥령〉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63, 한국문화회, 2013.

8) 최명익은 해방 전부터 <처녀작의 일절>(백치, 1928.7), <眺望文壇記>(조광, 1939.4), <禁酒難>(조광, 1939.4), <病床過春>(조광, 1939.6), <한숨 소리가 그림다>(여성, 1940.7), <手形과 原稿期日>(문장, 1940.7), <明眸의 毒蛇>(조광, 1940.1), <숨은

아홉 편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여기에 수록된 수필들은 전후 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1953-1960)와 사회주의 전면 건설기, 천리마운동 시기(1961-1966) 당시의 북한 문학계의 흐름과 정치적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⁹⁾ 셋째, 본문 4장은 후반부에 실린 열한 편의 수필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여기에는 최명익의 언어의식과 작가정신을 보여주는 내용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 정확성, 부정확성에 따라서 육체적으로까지 다른 감각을 일으킬 것 같았”¹⁰⁾다는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한 문장 사용, “어휘들의 어감”¹¹⁾까지 고려한

因果律-小說家の 아버지>(조광, 1940.7), <7월의 서경(西京)-매생이·어죽(魚粥의 야취(野趣))>(여성, 1940.7), <장마비와 보-드레르>(조광, 1940.8), <궁금한 그들의 消息>(조광, 1940.12), <여름의 大同江>(춘추, 1941.8) 등의 수필을 꾸준히 발표했고, 해방 후에도 다수의 수필을 발표했다. 『글에 대한 생각』에 수록된 열아홉 편의 수필 외에 필자가 찾은 글은 다음과 같다. 이 글들도 수록된 작품과 비슷한 내용이거나 같은 주제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명익이 반복되는 내용이나 겹치는 것은 빼고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大動脈 北朝鮮의 鐵道는 生動한다>(건설 3집, 1947.2),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문학신문, 1966.10.14.), <문학하는 태도>(청년문학, 1964.10), <실천을 통한 어휘공부>(청년문학, 1967.3호), <3·1 운동 때의 회상>(청년문학, 1958.3), <야쓰나야 뿔라나로 가는 길>(조선문학, 1957.11), <새로운 력사 소설을 쓰겠다>(조선문학, 1965.1), <일기초>(조선문학, 1962.8), <조국의 주인>(조선문학, 1958.12), <임진 조국 전쟁 때의 평양 사람들>(문학신문, 1957.10.10.), <창작에 관한 수필-장편소설 『서산대사』를 쓰기까지>(문학신문, 1960.5.10.), <재생의 날 8.15>(문학신문, 1958.8.14.), <청춘의 랑만으로써-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려다>(문학신문, 1957.12.26.), <일기초>(조선문학, 1962.8), <한 작가로서 말한다(5.16 비판 특집)>(문학신문, 1961.5.23.), <크나큰 궁지로써(당대회 감상)>(문학신문, 1961. 9. 15), <임오년의 서울을 쓸 때에>(문학신문, 1962.7.24)

9) 북한문학을 연구할 때 연구자의 역사주의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최명익의 『글에 대한 생각』에 수록된 열아홉 편의 수필은 1951년대 초반부터 1967년 주체문학으로의 전환 시기까지 이어진 매 시기 당의 문예 정책과 이것이 북한문학계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pp.11-15 참조.

10) 최명익, <소설 창작에서의 나의 고심>, 『글에 대한 생각』, p.95.

단어 선택, 우리말과 글의 바른 사용에 대한 그의 작가적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최명익은 해방과 분단, 북한문학의 변화 속에서도 성실한 작가적 자세를 잃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영웅적 민중상 발견했다. 최명익은 역사 소설 속에서 줄곧 “인민레찬”을 이야기했고 그 근거를 우리 민족의 “의리”에서 찾았다. 최명익은 주체의 자각이 들어있는 “의리”야말로 인민 중심의 역사를 추동하는 힘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역사소설 속에 그리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유일사상, 주체사상을 향해 급변하는 북한문학계의 변화 속에서 최명익의 인민레찬의 문학론은 설자리를 잃었고 이후 그의 자취는 사라지게 된다. 『글에 대한 생각』에 수록된 수필들을 분석하고 의미 부여 하는 작업은 단순히 수필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 북한의 당 정책과 이에 대한 최명익의 문학적 대응을 살피는 중요한 구실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해방 후 최명익이 걸어간 문학적 변모에 대한 자리매김을 도와줄 것이다.

Ⅱ. 『글에 대한 생각』 구성과 내용

『글에 대한 생각』 전체 본문을 각 장에 따라 정리해 보면 본문에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3-4쪽 목차에서는 앞의 아홉 편과 나머지 열편을 부호 “◇”를 가운데 두고 둘로 나누고 있다. 최명익이 “◇”로 앞글과 뒷글을 목차에서 굳이 구분한 이유는 뒤쪽에 실린 글들이 어휘, 문장, 인물, 주

11) 최명익, 앞의 글, p.100.

제, 작가의식 등 글쓰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열아홉 편의 수필을 제목, 발표년도, 줄거리 순으로 정리해 목차 순서대로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¹²⁾

글에 대한 생각		
제목	발표년도	줄거리
1. 경성'골의 청년공원	1959	실로 별천지가 된 오늘의 경성'골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인민들의 열의와 희망으로 충만한 창조적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이다.
2. 우리의 자랑	1958	장엄 웅대한 새 도시 평양은 전쟁 후 불과 4, 5년 만에 기적으로 건설되었다. 우리 북반부 인민들은 자기들을 생활과 국가의 주인으로 되게 한 당과 공화국에 대한 충성으로써 이러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3. 천금 같은 물	1963	넘쳐흐르는 수로의 물과 풍요한 전야, 농민들의 행복한 생활은 조선 로동당과 수령님 덕분이다. 농민들은 감사와 감격에 사무치고 앞날의 행복에 고무되어 일'손을 다그치고 있다.
4. 전기 세탁기	1963	제 4기 제 7차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로동자 동무들이 선풍기, 전기 다리미, 전기 세탁기 등을 만들고 쓰고 있다. 당의 령도 덕분에 착취자들로부터 해방된 인민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써 온갖 지혜와 로력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5. 반할 만 한 사람을 만난 때의 행복감	1957	황해남도 벽성군 시원리 상룡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안달수 동무는 반할 만 한 사람이다. 일이 가득 차 있는 눈을 가진 그는 공산주의적 인도주의를 현실화하는 사람으로서 소설가인 나의 창작 의욕을 충동해 주는, 반할 만 한 주인공이다.
6. 나의 념원	1956	-남반부의 어느 작가가 읽었으면 해서 이 글을 쓴다-는 부제처럼, “나는 변함 없이 영예로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한다.

12) 북한에서는 ‘조선어 철자법’이 1954년에 제정되었고, 1966년에 새로이 조선말 규범집을 공표하였다. 북한에서의 맞춤법은 형태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삼는데, ‘사이시옷’의 문제에 있어서, 형태소가 결합되어 복합어를 만들 때는 그 사이에 ‘ㄹ’의 부호를 쓰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ㄹ’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 『글에 대한 생각』에는 ‘ㄹ’사용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이상우 외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1989, pp.284-290 참조) 본고에서 인용할 때는 원문의 표기를 따르기로 한다.

7. 아들 최항백에게 주는 편지	1952	자랑스러운 조선 인민군인 아들 항백아, 내 비록 후방에 있으나 붓을 총으로 삼아 전선의 너와 함께 싸울 것을 네게 맹세하며 편지를 쓴다.
8. 잊혀지지 않는 나팔 소리	1951	우리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의 협동 작전으로 공동의 적인 미제의 침략군을 섬멸하고 평양을 해방시켰다. 히틀러와 일제의 썩어빠진 정복주의 략탈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9. 3.1의 회상	1964	남반부의 박정희 정권은 미제의 괴뢰요, 친일 주구다. 우리 인민은 구국 투쟁에 총 걸기하여 미제, 일본 군국주의자, 매국매족하는 괴뢰 도당을 타도하고 구국 투쟁에 총 걸기하면서 45년 전 이 날, 3.1절을 기념하자.



10. 소설 창작에서의 나의 고심	1956	《청년문학》 편집부의 부탁으로 문학을 지망하는 청년들에게 나의 창작 경험을 공개한다. 어휘선택, 모국어에 대한 책임감, 작품 동기, 창작이 중요하다.
11. 주제와 그것의 구현	1963	문학작품의 주제는 작가의 주장이다.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가지는 문학작품은 그 작가의 고매한 사상이 작품 속에 높은 형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12. 주인공과 작가	1963	소설은 작가가 자기의 주인공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좋은 문장, 빛나는 글이 되려면 먼저 그 글의 내용으로 되는 주인공이 명확, 선명한 표상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인공과 작가와의 관계다.
13. 창작에 대한 단상	1962	나는 당의 작가다. 우리 당은 이 변변치 못한 나에게도 내가 얼마든지 창작에 정진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 주었다. 나는 젊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않고, 창작에 더욱 정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채찍으로 삼는다.
14. 오늘과 래일을 위한 역사소설	1962	우리가 쓰는 력사소설은 그것이 어느 시대의 어떤 사건을 자료로 하든 간에 거기에는 진보적인 사상과 리상, 그리고 오늘의 시대 정신과 감정의 분위기가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15. 인민 레찬의 정열로써	1960	나는 첫 장편 《서산대사》를 쓸 때 원고지절마다 첫 장 한 가운데 데다 《인민 레찬》이라고 썼다. 그것은 그 소설의 주제였고 작가의 주장이었다.
16. 레브 톨스토이에 대한 단상	1957	레브 톨스토이의 작품은 인생 궁정의 찬가다. 젊은 한 때, 념원이기는 하면서도 나의 붓을 조국 해방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8.15 이후 당의 영도를 받게 됨으로써 내게도 인생 궁정의 주제를 조국을 위해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17. 《의리》라는 우리 말	1964	의리!라는 우리말의 참 뜻은 오직 자기의 운명을 자기 조국과 인민들의 그것과 하나로 결부시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결하고 고매한 정신적 풍모를 가리킨다.

18. 말	1964	작가는 자기 모국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작가는 말을 정확하게 쓰고, 독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우리말을 더 정리하고 풍부히 하고, 세련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19. 신인들에 대한 기대	1964	신인이란 청신한 맛이 나는 작품을 갖고 등장하는 작가를 뜻한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천리마 기수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배우는 동시에 스스로 사색하고 선배들에게서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인들이 선배들을 뛰어넘어 우리 문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둘째, 발표 된 년도 순서에 따라 정리해서 살펴 볼 수 있다. 1951년 발표 한 <잊혀지지 않는 나팔 소리>부터 시작해 마지막 해인 1964년에는 <3.1의 회상>, <의리라는 우리말>, <말>, <신인들에 대한 기대> 네 편을 발표했다. 년도 별 발표 작품 편수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51(1편), 1952(1편), 1956(2편), 1957(2편), 1958(1편), 1959(1편), 1960(1편), 1962(2편), 1963(4편), 1964(4편).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서 최명익의 행적과 발표 시기, 작품 편수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아들 최항백이 인민군으로 참전했다 전사하고 그 충격으로 최명익의 아내 역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다.¹³⁾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최명익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13) 최명익 연구의 여러 글에서, 최명익이 일찍이 두 딸을 잃고, 전쟁 중 외아들 최항백이 전사하고 그 충격으로 아내마저 숨진 후 고단한 삶을 산 것으로 적고 있으나, 『서산대사』를 준비하고 쓰기 시작해서 탈고할 때까지의 3년간의 일기를 발췌한 <일기초> (『조선문학』, 1962. 8)를 보면, 최명익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고, 작가동맹 소속 작가로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동년 동월 24일. 수요일 밤에 비 … 봄·비가 이 밤에 고요히 내린다. 요즘 일이 좀 지나친데다 커피를 과음한 탓인지 무척 피곤하면서도 신경은 가슬러 서서 잘 수가 없다.”, “동년 5월 3일, 화요일. 집을 나가지 않고 집필. 애써 온 서산대사의 과거 경력이 끝났다 … 종일 보슬비가 내렸다. 내 늙은 안해의 수수발과, 결명자를 심은 두 평쯤 되는 내 다원에는 마침으로 오는 비다.”, “오후에 학습회가 있어서 동맹에 가는 길에 원고를 가지고 가서 출판사에 넘겼다. 경험은 없는 일이지만 들은 말로-귀여운 딸을 시집보내

1955년까지 최명익은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¹⁴⁾ 몇 년의 공백 후에 최명익은 1956년 10월에 열린 조선작가동맹 제 2차 작가대회에서 결정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에 오른다.¹⁵⁾ 같은 해인 1956년 역사소설 『서산대사』를 발표하면서 재기하게 되고 중편 『임오년의 서울』(1963)을 발표한다. 이후 북한에서의 마지막 문필활동으로 알려진 <실천을 통한 어휘 공부>(1967)를 끝으로 이후 최명익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글에 대한 생각』 전반부에 수록된 글들은 북한문학 내부에서 최명익 개인의 입지 변화, 당대의 북한 문학이나 북한의 정치적 움직임, 항일혁명 전통, 한국전쟁,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기, 천리마 운동, 건국사상총동원운동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로 구분되어 있는 전반부에는 당의 정책과 북한사회의 변화, 이를 받들고 맞이하는 최명익의 각오와 다짐이 들어 있다. 이에 비해 후반부에는 글쓰기 자체를 다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명익 자신도 이를 의식하여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는 듯하다.

Ⅲ. 당의 문학으로서의 글쓰기

북한에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 중에는 ‘모든 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사회의 역량이 집중되었고, 1953년 전쟁이 끝나자

는 듯 서운한 생각도 들었다. 안해가 부분으로 대략 베껴 두었기에 망정이지 그것도 없이 내놓게 된다면 마음이 안 놓이고 더 애타할 것이다.”(<일기초>, pp.93-96.)

14)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pp.155-185.

15) 『조선문학』 1956년 11월호에 실린 1956년 10월에 열린 조선작가동맹 제2차 작가대회에서 결성된 동맹의 위원 명단을 보면, 최명익이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설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김재용, 앞의 책, pp.167-169.

‘전후 경제복구’와 ‘생산관계의 사회적 개조’라는 구호 아래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모든 힘이 동원되었다. 그 결과 인민경제 복구건설 3개년 계획에 의해 전후복구에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한편, 문학계에서는 1953년 9월에 제 1차 전국작가예술가 대회를 열고 ‘부르주아 미학의 잔재’에 물들어 종파주의에 빠졌다고 규정된 기존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해체하고 <조선작가동맹>을 따로 발족시켰다. 임화를 비롯한 남로당계 작가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숙청, 1958년 도식주의 비판에 대한 비판, 부르주아문학에 대한 비판, 1967년 유일사상 공포에 맞추어 일어난 비판 등이 말해주듯이 북한의 문학은 당대의 정치상황이나 문예정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된다.

오늘의 경성'골은 실로 별천지라고 할 것이다. 어제'날까지도 좁고, 구석지고, 서터리 사납던 골짜기를 단 60여 일 동안에 이 같은 별천지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인민들의 열의와 희망으로 충만한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¹⁶⁾

우리는 이렇듯 기적적으로 건설되는 우리의 새 평양을 자랑한다. 동시에 이러한 기적을 창조하는 우리 북반부의 로동 계급을 선봉으로 하는 근로 인민들을 우리는 또한 자랑한다. 우리 북반부 인민들은 자기들을 생활과 국가의 주인으로 되게 한 당과 공화국에 대한 충성으로써 이러한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다.¹⁷⁾

16) 최명익, <경성골'의 청년 공원>, 『글에 대한 생각』, pp.10-11.

앞으로 『글에 대한 생각』에 수록된 글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쪽수만 표기하고, 표기는 원문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17) <우리의 자랑>, p.16.

우리 당이 분초를 아껴 가며 건설한 중공업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압록강, 그 청천강, 그 대동강의 물이 전야로 흘러 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기에 풍부해진 물이다. 그러기에 하늘을 쳐다보며 원한과 한숨으로 연명해 오던 농민들이 오늘은 물을 주고 기쁨을 준 조선 로동당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사무친 눈을 들어 당과 수령을 우러러 보며 더 큰 앞날의 행복에 고무되어 일'손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¹⁸⁾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들이 오늘과 같이 룡성 발전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했고 또 계속 건설하고 있는 그 창조적 로력과 그 불타는 애국주의 정열의 원천이 어데 있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 주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의 령도에 의해서 착취자들로부터 해방된 인민들의 형상이다. 지난날의 원한이 뼈에 사무치는 그 착취자들이 다시는 머리를 들 수도 없는 새 조국을 건설하는 로동 계급이기 때문에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의 보람을 알고, 로동의 긍지감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써 온갖 지혜와 로력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것이다.¹⁹⁾

위의 인용은 『글에 대한 생각』에 수록된 순서대로 <경상'골의 청년 공원>(1959), <우리의 자랑>(1958), <천금 같은 물>(1963), <전기 세탁기>(1963)의 마지막 문단이다. 당과 수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하며,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²⁰⁾ 1958년부터 본격화되는 천리마 운동은 공산주의 건설을 새 목표로 내세웠다. 이제 모든 인민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했다.²¹⁾ 천리마운동을 통해 반중

18) <천금같은 물>, p.22.

19) <전기 세탁기>, pp.29-30.

20) 북한에서 문학작품의 의미는 명백해야 했고 오직 하나의 해독만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신형기·오성호는 “북한문학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다르게 써냈던 것”(『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p.59.)이라고 본다.

파투쟁으로 인한 여파를 일소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생산적으로 일신하려는 것이다.²²⁾

북한에서 이미 1947년 3월, 당에 의해 고상한 리얼리즘론이 주창되면서 혁명적 낭만주의가 제시되었던 바 있다. 1958년에 이르러 북한사회 안에서 공산주의의 전망이 선포되고 천리마 기수의 창조가 주창되면서 문학계 안에서는 극단적인 혁명적 낭만주의가 재등장하고 영웅적·긍정적 주인공을 그려야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된다는 견해가 주도적이 된다.²³⁾ 이에 따라 공산주의 교양에 힘쓰는 문학이 전일화되고, 전형화의 원리로서 노동영웅형상의 단일미학으로 정리되는 천리마기수 형상론이 나왔다.²⁴⁾ 이 시기 북한문학에서는 복구건설에 앞장서는 노동영웅을 그리되, 당시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처럼 개인 차원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이름 없는 보통사람들도 얼마든지 노동영웅이 될 수 있다고²⁵⁾ 하여,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

21) 1952년 4월 소련에서 『프라우다』지를 통하여 이전의 무갈등론에 입각한 작품에 대한 비판적 사실을 게재하고, 1952년 10월 소련 공산당 제 19차 당대회에서 말렌코프가 비슷한 견해를 내놓은 것을 계기로 북한에서도 무갈등론 비판이 제기된다. 엄호석이 1952년 11월에 『문학예술』에 발표한 「문화발전의 새로운 징조」가 그 대표적인 글로서 그는 이전한 문학계의 무갈등론과 이로 인한 도식주의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1958년 말 북한사회가 사회주의 개조를 완결하고 공산주의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면서 ‘도식주의 비판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고부터 사라지게 된다. 전쟁 후, 국가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쓰는 일이 과제가 되었고, 무갈등론에 입각한 문학의 도식주의 비판이 다시 비판받기 시작했다. 작가동맹 위원장 한설야는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독단주의가 종식되어야 한다며 도식주의 비판 연설을 했지만(한설야, 「전후 조선문학의 현 상태와 전망」, 『제2차 조선작가대회 문헌집』, 1956, p.6.), 불과 3년 뒤, 자신의 의견을 뒤집고 도식주의 비판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다.

22) 신형기·오성호, 앞의 책, p.219 참조.

23) 김재용, 「전후 북한의 문학비평과 도식주의 논쟁」,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2』, 한길사, 1996, p.320.

24) 김성수, 『북한 『문학신문』 기사목록』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p.45.

25) 김성수, 앞의 책, p.34.

라 공산주의적 인격도 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는 또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지금<아버지>를 찾아 온 젊은이들은 다 누군가요?》

《여기 민청원들한테는 다 그럼 지금<아버지>니께요.》

주산을 농기에 바쁜 부기장은 얼굴을 들지도 않고 이런 대답을 했다. 극히 치심상하게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이 곳 젊은이들이 저희 관리위원장을 《동네 아저씨》격으로 부르기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에게 이미 그렐 만 한 예비 지식이 있는 것이다. 아까의 그 로인은 안 달수 동무의 아버지도 삼촌도 아니연만 함석 지붕이 샌다는 자기 집 일'거리를 관리 위원장의 걱정'거리로 가져 오지 않았던가!²⁶⁾

안달수 동무의 이런 말이 단순한 정론이겠는가? 아니다, 그는 오직 당의 정책을 받들어서 현재 자기가 몸소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것 뿐이다. 앞서도 말했거니와 알곡 증산도 증산이려니와 《사람을 키우는 농업 협동 조합》! 즉 말을 바꾸어 말하면 공산주의적 인도주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²⁷⁾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요구했고²⁸⁾ 전통적인 농민사회의 해체는 협동조합을 통해 극복해야 했다. 신인간을 그리는 것은 북한문학의 성립기부터 중요한 과제였고, 협동조합장은 천리마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진실한 생활상을 그리는 긍정적 주인공의 형상으로 그려졌다.²⁹⁾ 이 시기 북한문학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인간이란 구체적으로 어

26) <반할 만한 사람을 만난 때의 행복감>, pp.35-36.

27) 앞의 글, p.60.

28) 신형기, 오성호, 앞의 책, p.191.

29) 1960년 11월 27일 김일성은 담화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에서 당의 총노선인 천리마운동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천리마 기사들의 전형 창조를 강조한다. (김일성,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작가, 작곡가, 영화부문

떤 형상으로 그려져야 하는가? “모범 농민, 열성 농민”이요, 상륙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이자, “토지 개혁에 의하여 자기 농토의 주인이 되자, 정당 한 톤 오백 킬로그램 밖에 안 나던 땅에서”, “전쟁 직전에는 7톤 4백 킬로그램까지 거둔 다수확 농민”³⁰⁾인 안달수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다.

일제 강점과 해방, 6.25 전쟁을 다룬 <나의 녀원>(1956), <아들 최항백에게 주는 편지>(1952), <잊혀지지 않는 그 나팔소리>(1951), <3.1의 회상>(1964) 역시 북한의 당 문예정책을 충실히 반영한다.

어언간 세월은 흘러 45년이 지난 그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쓰는 지금의 나는 다시 찾은 우리 조국에서-, 우리 당과, 우리 주권의 품 속에서 사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나 간 일이라고 해서 그 도탄의 일제 시대를 단지 과거의 회고담으로만 이야기하지는 말자. 우리 조국 남반부는 지금까지도 미제 강점하에 있고, 그 곳 인민들은 지금도 억압 착취를 당하고, 생지옥의 고초를 겪고 있다.³¹⁾

우리는 싸워야 한다. 강점자 미제를 몰아 내기 위해서-. 또다시 침입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를 막기 위해서-. 미국 매족하는 괴뢰 도당을 타도하기 위해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같은 처지에서 전체 인민이 구국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건의하면서 45년 전의 이 날, 3.1절을 기념하자.³²⁾

6.25전쟁을 “미제의 침략 도구인 리승만의《북진》홍모에 의해서 도발되

일군들과 한 담화-1960년 11월 27일”, 『김일성 저작집』14,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453.)

30) 같은 글, p.40.

31) <3.1의 회상>, p.91.

32) 앞의 글, p.92.

었던 지난 3년 간의 전쟁”³³⁾, “조국 해방 전쟁”³⁴⁾으로, “중국 인민 해방군”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로 맺어진 “혈연적이요, 형제적인 친선 관계”³⁵⁾로 적고 있다. 전쟁은 미제국주의자가 일본군국주의자와 결탁하여 남조선을 지배하고 북한이 성취한 ‘민주주의’를 빼앗으려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악의 원천이고 싸워 무찔러 마땅한 대상이다.³⁶⁾

북한에서 말하는 훌륭한 작품이란 당의 영도적 원칙에 충실하고, “우선 당과 조국과 인민의 이익에 우선적으로 복무하는 인민교양의 무기일 때”, 그리고 “혁명사업의 한 구성부분으로써 당과 국가정책에 대한 불가분리의 의존성 속에서”³⁷⁾만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 수필집 『글에 대한 생각』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반부에서 거듭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야기들은 최명익 개인 삶의 내밀한 자기고백이 아니라, 매 시기마다의 당 지침이고 문예정책인 것이다.

33) <나의 념원>, p.71. <나의 념원>은 -남반부의 어느 작가가 읽었으면 해서 이 글을 쓴다-는 부제가 붙은 데서도 드러나듯이 문학의 기능 등에 대한 최명익의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 있는 중요한 글이다. 이 글은 <글>을 다루는 제 4장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34) <아들 최항백에게 주는 편지>, p.72.

35) <잊혀지지 않는 그 나팔 소리>, pp.78-79.

36) 김윤식은 최명익의 『서산대사』(1956)가 1592년이라는 먼 거리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현대의 전사로서의 역사소설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을 6.25를 체험한 북한의 나라 세우기-평양중심주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민중의 간고한 투쟁에 의한 평양성 탈환은 북한민중이 겪은 6.25체험과 같은 것이어서 임진왜란을 다룬 『서산대사』가 전후 북한사회의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 앞 단계의 역사(前史)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식, 『역사소설의 세가지 형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p.401.

37) 안함광, 『우리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선노동당 정책의 정당성』, 『조선문학』, 1963. 9, p.7.

IV. 글에 대한 생각과 “인민 레찬”

『글에 대한 생각』 후반부에는 글쓰기에 대한 최명익의 생각이 주로 담겨 있다. 최명익은 1957년 항일무장투쟁 참가자들의 회상기 집필에 참여했으며, 1950년대 후반에는 평양문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³⁸⁾ 뿐만 아니라 글을 쓰려는 지망생들이나 후배들을 위한 글을 써서 『문학신문』, 『조선문학』, 『청년문학』 등에 발표했다.³⁹⁾ 『글에 대한 생각』 후반부에는 1956년부터 1964년까지 발표했던 여러 글들 중에서 가려 뽑은 글 열한편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말, 글, 어휘, 문장, 주제, 인물 등 글쓰기의 여러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전반부에 비해 최명익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글쓰기를 빌어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후반부의 글들은 최명익 연구의 중요한 발미를 제공한다.

최명익은 1930년대의 세대론 논의 이후부터 줄곧 실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온 작가다. 창작에 임하는 그의 성실한 자세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에 수록된 <나의 념원>에도 “조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념원하는” “독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작품은 오직 성실한 작가만이 쓸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⁴⁰⁾라고 쓰고 있다.

38) 최명익의 생애와 해방 이후 최명익의 행적과 발표 작품에 대해서는 신형기, 『최명익과 채신의 꿈』, 『현대문학의 연구』24, 2004. 9, pp.339-340, 임옥규, 앞의 글, pp.325-329, 장수익, 『그들의 문학과 생애-최명익』, 한길사, 2008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39) 2부 첫 글인 <소설 창작에서의 나의 고심>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청년문학》 편집부에서는 문학을 지망하는 청년들에게 문학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나의 창작 경험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p.93.) 그리고 확인 가능한 최명익의 마지막 글이 <실천을 통한 어휘공부>(『청년문학』, 1967. 3호)인 것을 보면 최명익이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

40) <나의 념원>, p.68.

최명익 선생이 《명하》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싶다. 남보다 재주가 무디기 때문에 갑절 노력했다는 어느 옛날 사람의 고사에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한 호를 택했다는 데서 나는 소설가 최명익의 한 측면을 볼수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그야말로 살을 예우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글을 쓴다.⁴¹⁾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각자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각 분야에서 일할 것이다. 각각 자기 분야에서 하는 일은 각양 각색일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일하는 태도와 그 심정은 하나 같을 수 있으며 또 하나 같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이 물음에 대해서 나는 생각한다. 《성실하게》라고! 이것이 한 작가로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며,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⁴²⁾

유항림의 증언이나 최명익 자신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최명익은 자신이 글재주가 없으니 오직 성실한 노력만이 작가로서 갈 길이라고 생각했다. 작가란 모름지기 “《특해 다르고, 탁해 다른 법》”인 우리말의 “어휘들의 어감(語感)까지도 잘 알아야”하며 “자기 모국어에 대한 엄숙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우리 조선 말을 더욱 정리하고, 풍부하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세련하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⁴³⁾다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문장, 빛나는 글이 되려면 먼저 그 글의 내용으로 되는 명확, 선명한 표상을 가져야 할 것”⁴⁴⁾을 강조한다.

<말>(1964)은 『글에 대한 생각』에 실린 글 중에서도 글에 대한 최명익의 생각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글이다. 이 글에서 그는 “우리 말로

41) 유항림, <노력하는 작가 최명익>, 『문학신문』, 1962. 7. 13. p.3.

42) <소설 창작에서의 나의 고심>, pp.103-104.

43) 앞의 글, pp.100-101.

44) <주인공과 작가>, p.118.

우리 글을 쓰자!”라고 주장하면서 어문일체를 강조하고 평소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문장에 대해 세세히 지적한다. 그리고 말과 글의 정확성, 소설에서의 서술과 묘사의 중요성, 정확하고 정밀한 문장 사용하기 등을 구체적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수사를 레로 든 김이니 말하겠다. 옆집 애들이 산수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한다. 한 애가 푸는데 《연필 일(1) 다스는 십이 자루지? 그러니까 이(2) 다스면 이십 사 자루지-, 거기다 또 칠(7) 자루를 합하면 삼십 일 자루 아니구 뭐니!》한다. 그래서 내가 《너 지금 몇 살이지?》물었더니 《십 세!》라고 한다.

이러다가는 《백》, 《천》뿐 아니라 남은 《아흔 아홉》까지도? 하는 생각조차 없지 않았다.⁴⁵⁾

《…푸른 빵끼를 먹어서 흰한 정문…》

물론 이 대로도 알 수는 있다. 하나 빵끼인 경우에는《먹》인다는 것보다는《칠》한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 어감에 차이가 있는 말들이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을 밖에 없다.

기름도 빵끼와 마찬가지로 칠하기는 칠한다. 하나 흔히들 《기름을 먹인다》고 한다. 그러나 빵끼는 그것의 기름은 찾아 먹고 스며 들지만 빵끼 색은 표면에 남는다. 즉 칠해져 있는 것이다.

독자들이 이같이 말 한 마디에까지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결코 그들이 다 트집바탈이 우리 말과 글의 정확성을 옹호하는 데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푸른 빵끼》칠을 한 그 《정문》이 작가가 의도한 대로 더욱 더 《흰》했으면 해서인 것이다.⁴⁶⁾

나아가 최명익은 우리말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곧 “주체의 문

45) <말>, pp.160-161.

46) 앞의 글, p.166.

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에 상품 거래와 문화 교류를 따라서 말까지도 《수출되고》《수입되는》것은 역사적 필연성이라고”해도 “《등피》《락수’물》《처가’집》”⁴⁷⁾처럼 인민적인 우리말로만 들어 쓰자는 것이다. “작가는 자기 모국어에 대하여 엄숙한 책임감을 가져야”하는데, “로씨야 말에 대한 뿌슈킨과, 독일 말에 대한 괴테와, 영어에 대한 셰크스피어의 공헌”을 보았듯이 “우리 작가들도 우리 조선 말을 더욱 정리하고, 풍부하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세련되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⁴⁸⁾다는 것이다.

『글에 대한 생각』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1957년에 쓴 <야쓰나야 빨라나로 가는 길>⁴⁹⁾에서 최명익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주체성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 최명익은 북한문학에 미친 소련의 당정책과 문예정책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문학적·역사적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역설한다.⁵⁰⁾ 최명익이 여러 글에서 줄곧 강조한 주체성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그의 역사소설이다. 급변하는 북한 문학계의 흐름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변모를 감행한 그가 당의 작가로서 선택한 것은 역사소설 쓰기였고 그것은 『서산대사』, 『임오년의 서울』, 『리조망국사』 등으로 구체화된다.⁵¹⁾ 최명익은 역사소설을 통

47) 앞의 글, p.161.

48) <소설 창작에서의 나의 고심>, p.101.

49) 『조선문학』123호, 1957, pp.84-92.

50) 장수익, 『그들의 문학과 생애-최명익』, 한길사, 2008, p.125.

51) 임옥규는 최명익이 전쟁 직후 자연주의 작가, ‘부르조아 잔재의 작가’로 비판받았고 이것이 최명익이 역사소설을 창작하게 된 계기라고 본다(임옥규, 앞의 글, p.327). 하지만 최명익이 역사소설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사소설에 대한 작가로서의 관심과 흥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최명익은 <일기초>에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 역사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동시에 소설적 흥미도 있게 재현하는 것은 나 도 재미있고 또 의의 있는 일일 것 같다.”(최명익, <일기초>, 『조선문학』, 1962.8,

해 북한의 새 국가 건설 기획에 동참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그것을 주체적 인민의 모습으로 그리고자 했다.⁵²⁾

<창작에 대한 단상>(1962), <오늘과 래일을 위한 역사소설>(1962), <인민레찬의 정렬로써>(1960)에는 최명익이 역사소설 쓸 때의 각오와 다짐이 새겨져 있다. 역사소설은 “비록 몇 천년 전의 이야기일지라도 오늘의 인민들에 관해서 말해야 하고 또 그들의 념원이 반영되며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는 작품이라야⁵³⁾” 한다. 그리고 진정한 역사소설이 되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래일을 건설하고 있는 근로 인민들에게 그들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신심으로써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적 로력의 의욕을 발동케 하는 감격과 감동을 일으키는 작품이어야⁵⁴⁾”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쓰는 동안 갈아대는 원고지철마다 그 표지라고 할 뎨 첫장 한가운데는 《인민 레찬》이라는 네글’자를 크게 써 놓군 했다. 계속해 쓰려고 원고지철을 펴 놓을 때마다 나는 그것을 다시금 읽었다. 《인민 레찬!》이것은 그 장편에서 내가 리행하기로 스스로 약속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 소설의 주제였다. 나는 이 소설에서 임진 조국 전쟁을 당시의 력사적 사건들을 빌어서 우리 조선 인민을 레찬하고 싶었다. 단지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충동이 내 마음 속에서 끓어 번졌다.⁵⁵⁾

p.93.) 최명익은 청소년을 위한 역사물 창작에도 관심을 두었고 <강감찬>, <고주몽>, <신라무사> 등을 썼다.

52) 최명익이 6.25 전쟁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역사소설에 줄곧 관심을 두었다는 것은 『글에 대한 생각』 이외의 여러 글에서도 확인된다. 그가 63세 되던 해인 1965년에 『조선문학』에 게재한 <새로운 역사소설을 쓰겠다>에도 “이 새해부터 나는 력사소설을 시작하려 한다. 《한일합병》직전부터 3·1봉기까지 10여년간의 력사적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인민이 겪어 온 고난과 불굴의 투쟁을 2부작으로 그려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최명익, <새로운 역사소설을 쓰겠다>, 『조선문학』, 1965.10, pp.11-12.)

53) <오늘과 래일을 위한 력사 소설>, p.129.

54) 앞의 글, p.126.

-장편 소설 『서산대사』를 쓰기까지-란 부제가 붙어 있는 윗글이 말하는 바, 최명익은 오직 ‘인민레찬의 정열로써’ 역사소설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⁵⁶⁾ 1592년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서산대사』나 1882년의 임오군란을 다룬 『임오년의 서울』의 진짜 주인공은 이름 없는 민중들이다. 임옥경, 고충경, 전주복, 법근, 현차돌, 계월향, 보패(『서산대사』), 김장손, 김춘영, 강명준, 류복만, 류춘만, 정의길, 장태진, 백락관(『임오년의 서울』) 등은 지도계급의 부정적 형상에 맞서는 긍정적 인물들로서 민중적 영웅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대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길로 서슴지 않고 나갈 수 있”⁵⁷⁾는 사람들이다. 『임오년의 서울』에 등장하는 구식군인들은 고양군 민란진압에 동원되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백성들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총부리를 세워두고 하늘에 대고 총을 쏜다. 민란을 일으킨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양반집의 “계집은 건드리지 않고,” “재물은 바늘 한 개라도 사사로이는 다치지 않는”⁵⁸⁾다. 최명익은 역사소설에서 이름 없는 민중들이야말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역사의 주인공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최명익이 해방과 분단을 거쳐 북한문학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변화된 현실과 새로운 세계의 긍정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55) <인민 레찬의 정열로써>, pp.132-133.

56) 노동계급이나 농민의 민중적 자발성을 높이 평가하는 최명익의 태도는 해방 직후 발표한 단편 <맥령>(1946)에서부터 시작된다. <맥령>의 민중들은 <장삼이사>(1941)에서 그려진 부정 일변도의 민중상과 정반대 지점에서 그려진다. 이에 관해서는 김해연, 『해방직후 최명익 소설 연구-『맥령』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17호, 2002, pp.229-250.; 김해연, 『최명익 소설의 서술 기법 연구-〈장삼이사〉와 〈맥령〉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63, 한국문화회, 2013, pp.301-329 참조. 최명익 소설과 민중의 자발성 문제는 김재용, 『해방 직후 최명익 소설과 『제1호(第一號)』의 문제성』, 『민족문학사연구』17, 1996, pp.396-442.; 장수익, 『민중의 자발성과 지도의 문제』, 『한국문학논총』60, 2012, pp.199-233 참조.

57) 『서산대사』, p.122.

58) 최명익, 『임오년의 서울』 제4회, 『조선문학』, 1961. 8, p.83.

받아들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⁵⁹⁾

<의리라는 우리 말>(1964)에는 민중의 자발성이 어디서 연유하는 지에 대한 최명익의 생각이 들어 있다. 최명익은 “《도리》의 그것은 타율적인 것이요, 《의리》의 그것은 주체의 자각인 것이”며, “《의리》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알고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따라서 나 자신도 그러한 한 사람이라는 자각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⁶⁰⁾ 본다. 60년대 초의 북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운동의 기수’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었고, 최명익은 이를 민중들의 “《의리》의 구현”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 작업반 동무들을 위하여 자기 개인의 이해를 도외시하고 노력하는 길 확실 동무를 비롯한 모든 천리마 작업반들의 선진적 로동자 동무들의《의리》는 더욱 빛난다. 그 동무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이 결코 어떤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는 한 부분으로 되는 일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다는 자각과 긍지감에서 구현되는 《의리》인 것이다.⁶¹⁾

최명익은 해방 직후부터 줄곧 새로운 역사 건설의 핵심 단위로서 ‘민중의 주체성’을 강조해왔는데, 이 글에서 최명익은 역사를 추동하는 민중의

59) 최명익은 <레브 톨스토이에 대한 단상>(pp.139-152)에서 해방을 기점으로 한 자신의 문학적 변모에 대해 ‘도스토예브스끼’와 ‘톨스토이’의 상반된 세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식민지 청년으로서 일본인들에게 받은 수모와 상처, 3·1 운동 때에 흘린 피와 희생, 피의 날의 아픈 기억은 젊은 최명익을 ‘도스토예브스끼’의 심령의 신음소리에 매료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방과 전쟁을 겪고 북한문학의 중심으로 나아간 최명익은 우울한 모더니스트로서의 자신을 반성하고 비판하면서 톨스토이가 말한 인생궁정의 대서사시의 나아가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60) <《의리》라는 우리 말>, pp.156-157.

61) 앞의 글, p.159.

힘은 “하나의 어엿하고 당당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안받침 되는”⁶²⁾ 《의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임진 조국 전쟁 당시-. 그리고 또 리조 말기에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여 무기를 들고 싸운 우리 인민을 《의병》이라고 하는데 그 《의》자가 바로 이 글‘자’⁶³⁾라는 것이다. 주체의 자각에서 비롯되는 《의리》는 예부터 우리 민족이 간직해 온 고귀한 품성이고 원래 그런 것인 까닭에 시대나 사회 변모를 초월한 가치가 된다.

그러나 민중의 주체성을 본질로 보는 최명익의 문학관은 해방 이후 진행돼 온 지도자 중심의 북한 문학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고, 특히 1967년의 반중과 투쟁 이후 주체사상과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 확립과 더불어 변모한 북한문학의 요구와 상반되는 것이다.⁶⁴⁾ 1967년 이후 북한문학에서 유일사상의 핵심인 수령의 형상이 등장하고 수령이 유일한 진리가 된 마당에 민중이 역사의 주역이 되는 옛날이야기는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최명익은 1960년대 접어들면서 계속된 비판⁶⁵⁾에 시달려야 했

62) 앞의 글, p.157.

63) 앞의 글, p.154.

64) 최명익은 북한문학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끝내 당의 작가로서 최선을 다하려 애썼던 것 같다. 1966년에 『문학신문』에 실린 글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당당한 당의 전사, 로동계급의 전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할 결의를 다지면서 이 문헌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이 없이는 그리고 그 전투성을 바로 내 것으로 지니지 않고서는 우리 근로인민들의 혁명적 열의를 더욱 용솟음치게, 더욱 뜨겁게 할 그런 혁명적인 작품을 쓸수 없다는 것을 알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우리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나는 이와 같이 당의 붉은 작가로서의 긍지를 간직하고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혁명적인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겠다는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게 됩니다.”(최명익,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문학신문』, 1966.10.14. p.2.)

65) 『서산대사』를 비판한 대표적인 글로는 윤세평, 『우리 나라에서 장편 소설의 구성상 특성과 제기되는 문제』, 『조선문학』, 1962, 1호, p.111.; 고정옥, 『작가의 개성과 언어의 문체를 두고』, 『조선문학』, 1966, 6호, p.69 등이 있다. 『임오년의 서울』은 천리마 기수 형상론이 지배하던 당대북한문단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

고, 1960년대 중반 숙청을 당하면서 북한 문단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후 그의 삶이나 사명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찾아보기 힘든 까닭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천을 통한 어휘공부>(1967)⁶⁶⁾를 끝으로 북한문단에서 최명익의 글이나 자취를 찾을 수 없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최명익 수필집 『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다. 해금 조치와 더불어 이루어진 북한문학에 대한 관심과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지만 이제껏 최명익 연구가 소설에만 국한되어 왔다는 데에 이 글의 문제의식이 놓인다. 『글에 대한 생각』에는 각 시기의 북한 문학계의 흐름과 정치적 변화가 반영되어 있고 이에 대한 최명익의 문학적 대응이 들어 있다.

본고는 우선 열아홉 편의 수필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을 2장에서 하였다. 『글에 대한 생각』에 수록된 열아홉 편의 글이 자기고백적인 수필과는 거리가 멀지만, 수록된 작품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지금껏 소설에만 치중돼 온 최명익 연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3장은 전반부에 수록된 아홉 편의 수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 수록된 수필들은 전후 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1953-1960)와 사회주의 전면 건설기, 천리마 운동기(1961-1966) 당시의 북한 문학계의 흐름과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본문 4장은 후반부에 실린 열한 편의 수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글

해서는 김은정, 앞의 글 참조.

66) 최명익, <실천을 통한 어휘공부>, 『청년문학』131호, 1967. 3호, p.17.

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최명익의 언어의식과 작가정신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필집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 정확성, 부정확성에 따라서 육체적으로까지 다른 감각을 일으킬 것 같았”다는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말과 글의 바른 사용에 대한 그의 작가적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해방 전 예리한 시선으로 식민지적 근대의 한계를 감지하고 폭력성을 비판했던 최명익이지만 해방을 기점으로 북한문단의 중심으로 나아갔고, 문학세계의 변모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명익은 해방을 기점으로 긍정적 형상으로서의 민중을 발견했고, 구체적으로 인민 중심의 역사소설로 그려내고자 했다. 최명익은 역사소설 속에서 줄곧 “인민레찬”을 이야기했고 그 근거를 우리 민족의 “의리”에서 찾았다. 최명익은 민족 고유의 품성과 주체의 자각이 들어있는 “의리”야말로 인민 중심의 역사를 추동하는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급변하는 북한문학계의 변화 속에서 최명익의 인민예찬 문학론은 설자리를 잃었고 이후 그의 자취는 사라지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일제 강점과 분단, 전쟁과 남북 분할이라는 역사적 질곡 속에서도 최명익이 꾸준히 작가로서의 사명을 다했고 “인민 레찬의 정열로써” 자신의 몫을 다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그의 작가로서의 열정과 애정이 『글에 대한 생각』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아직도 다 찾지 못한 최명익의 작품들과 밝히지 못한 그의 행적에 대한 문제는 본고의 다음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최명익, 《글에 대한 생각》,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 1964.
 _____, 《장삼이사》, 을유문화사, 1947
 _____, 《맥령》, 평양: 문학예술총동맹 문화전선사, 1947.
 _____, 《서산대사》,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 1956.
 _____, 《임오년의 서울》,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사, 1962.
 _____, <야쓰나야 빨라나로 가는 길>, 『조선문학』123호, 1957, pp.84-92.
 _____, <일기초>, 『조선문학』179호, 1962. 8, pp.93-96.
 _____,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문학신문』, 1966.10.14. p.2.
 _____, <실천을 통한 어휘공부>, 『청년문학』131호, 1967. 3호. p.17.
 『문학신문』, 『조선문학』, 『청년문학』
 이선영·김병민·김재용 엮음, 『현대문학비평자료집』2, 태학사, 1993.
 _____, 『현대문학비평자료집』3, 태학사, 1993.
 _____, 『현대문학비평자료집』4, 태학사, 1993.

2. 논문 및 단행본

- 김민정, 『근대주의자의 운명을 재현하는 방식』, 『근대문학의 유인과 미적 좌표』, 소명, 2004, pp.332-349.
 김성수, 『북한 『문학신문』 기사목록』,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_____,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_____, 『최명익론-평양중심화사상과 모더니즘』, 『작가세계』, 1990년 여름호, pp.162-195.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김은정, 『천리마 기수 형상론』과 최명익의 『임오년의 서울』, 『세계문학비교 연구』33호, 2010 겨울호, pp.81-106.
 김재용, 『해방직후 자전적 소설의 네 가지 양상』, 『작가세계』, 1990년 여름호, pp.136-151.
 _____,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_____, 『해방직후 최명익 소설과 『제1호』의 문제성』, 『민족문학사연구』17호, 1996,

- pp.396-442.
- _____,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2, 한길사, 1996.
- _____,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사, 2000.
- 김혜연, 「최명익 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논문, 2000.
- _____, 「해방직후 최명익 소설 연구-『맥령』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17호, 2002, pp.229-250.
- _____, 「최명익 소설의 서술 기법 연구-〈장삼이사〉와 〈맥령〉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63, 한국문화회, 2013, pp.301-329.
-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 신형기, 「최명익과 채신의 꿈」, 『현대문학연구』24호, 2004, pp.339-383.
- 오영진, 『하나의 증언』, 중앙문화사, 1952.
- 윤광혁, 「최명익의 생애와 창작을 더듬어」, 『조선문학』, 2003년 7호, pp.71-73.
-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 사사연(思社研), 1986.
- 이명재,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 이상우 외,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1989.
- 임옥규, 「최명익의 역사소설과 북한의 국가건설 구상: 『서산대사』, 『임오년의 서울』, 『섬월이』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2권 2호, pp.321-336.
- 장수익, 『그들의 문학과 생애-최명익』한길사, 2008.
- _____, 「민중의 자발성과 지도의 문제」,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화회 60호, 2012, pp.199-233.
- 정영진, 『통한의 실종문인』, 문이당, 1989.
- 진정석, 「지식인의 자의식에서 민중의 발견까지: 최명익의 삶과 문학」, 『최명익 소설선집』, 현대문학, 2009, pp.455-467.
- 한국 비평문학회, 『혁명전통의 부산물』, 신원문화사, 1989.
- 현 수, 『적치 6년의 북한문단』(국민 사상지도원, 1952.) 보고서, 1999.
- 홍혜미, 「역사소설의 의미규명-최명익 <서산대사>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2003, pp.83-105.

Abstract

A Study on ‘an Idea about Writing’, a collection of essays by Choi Myung-ik

Kim, Hae-Yeon

This paper examines Choi Myung-ik's collection of essays, ‘an idea about writing,’ which contains his nineteen essays. Reflected in this collection are not only his idea about writing but trends in the North Korean literary circles and political change, of the day and his literary response to them. Nevertheless, very little study of Choi Myung-ik's essays has been done. The concern for and product of study of, North Korean literature have been profound as soon as the ban on it was lifted, but until recently, most studies of Choi Myung-ik have been restricted mainly to his novels. This paper is based on this problem recognition.

In the second chapter, the essays in ‘an idea about writing’ are organized and summarized in order. These nineteen essays are far from self-confessional ones, bu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widening range of study of Choi Myung-ik in the respect that the number of essays outgoes that of his novels.

The third chapter examines the first eight essays of the collection. They directly reflect the flow of the North Korean literary world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during both the period of post-war reconstruction work and foundation construction for socialism(1953-1960), and the period of over-all building of socialism and Chollima Movement(1961-1966). Through this examination we've come to see the party line of North Korea during each period and Choi's literary response to it.

In the fourth chapter, Choi's linguistic sense and spirit of writing are analyzed, centering on the second half of the collection. We can recognize his great effort for correct usage of our language and words through his confession, “each word seemed to awaken different feelings physically as well

as emotionally in accordance with its accuracy and inaccuracy.”

Though Choi Myung-ik criticized sharply the limitation and violence of colonial modernity before liberation, he took a step forward the center of North Korean literary circles and thus his world of literature also could not but change after liberation. He found the positive image of the people and described it in the form of historical novels with the purpose of ‘admiration for the people.’ Choi Myung-ik consistently attempted to embody ‘admiration for the people’ in his historical novels whose roots he found in the ethos of ‘uiri’(loyalty) of our nation. He thought that this very ‘uiri’ connoting the self-consciousness of the subject was the driving force of the people-centered history. However, in the wake of dramatic changes of North Korean literary circles since 1960s his literary theory of ‘admiration for the people’ lost its footing and then he vanished into thin air.

Key Word : Choi Myung-ik, Idea about Writing, literature of North Korea, party literature, historical novel, admiration for the people, ‘uiri’.

김해연

소속 :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631-872)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 대동씨코아 아파트 1502

전화번호 : 010-3455-6081

전자우편 : seacore@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

